

4월의 사양관리포인트

- ◇ 4월은 우리 양계가들이 눈코뜰새 없이 분주해지는 시기이다. 각종 닭의 질병이 ◇
- ◇ 만연되는 시기이므로 예방대책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호흡기 질병인 뉴كت을 ◇
- ◇ 예방 접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봄 육추가 한창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
- ◇ 로 양계가들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 ◇ 며 특히 초보자는 부화장 선택에 유의해 ◇
- ◇야 한다.<편집자> ◇

1. 기상

하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4월중 각지의 일조시간은 1일 약 2분간씩 길어지고, 평균 기온은 최적온도를 유지하며 상대습도도 60% 내외로서 닭의 생리에 가장 알맞는 자연환경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온의 일교차와 예상외의 전조상태로 각종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유발되기 쉬운 계절이므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 구분 | 일조시간 | | 평균기온 | 강우일수 |
|----|-----------|-----------|--------|------|
| | 4월 1일 | 4월 30일 | | |
| 서울 | 12시간37분 | 13시간40분 | 10.5°C | 8일 |
| 대전 | 12 " 36 " | 13 " 40 " | 11 " | 8 " |
| 대구 | 12 " 34 " | 13 " 38 " | 12.1 " | 8 " |
| 광주 | 12 " 33 " | 13 " 35 " | 11.4 " | 9 " |
| 부산 | 12 " 34 " | 13 " 34 " | 12.5 " | 9 " |
| 제주 | 12 " 32 " | 13 " 30 " | 12.3 " | 10 " |

2. 육계의 관리 포인트

육계의 사육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육계 사육은 빠다리 육추와 연탄난로를 이용한 평사 삿갓 육

김 성호

<진홍사료 영업부장>

주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각자의 관리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다.

(1) 빠다리 사육

- ① 밀사가 되지 않도록 적기에 이동할 것
- ②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기를 잘 시킬 것
- ③ 음수량 증가로 인하여 물통이 마르기 쉬우므로 물을 자주 공급해 줄 것
- ④ 사내가 전조하기 쉬우므로 입추후 2주일 까지는 반드시 습도를 높여줄 것
- ⑤ 계체(鷄體)에 상처가 나기 쉬우며 이는 빠다리병(포도상구균증)의 발병 요인이 되므로 20일령 이후에는 2일에 1회이상 계사내 분무 소독을 할 것

(2) 평사 삿갓 육추

- ① 모이통과 급수통을 충분히 넣어주고 계사내에 고르게 배열할 것
- (주의) 모이통과 급수통이 부족하거나 배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강약의 층이 많이 생긴다.

- ② 입추시부터 출하시까지 계사내 공중분무 소독을 최소한 일주일에 3회이상 실시할 것
- ③ 야간의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인하여 암사의 우려가 있으니 저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점등이 암사의 예방책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밝지 않게 종야 점등해 준다)

④ 평사 삿갓 육추 최대의 적은 만성록시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발육부진, 착색불량 및 40일~50일령에 다발하는 각약증상의 최대 요인인 되니 예방에 전력을 기할 것

(예방요점)

1. 계사내외를 올소제 소독약 (가금줄, 단줄, 다나베줄 등)으로 철저히 소독할 것

2. 환기를 잘 해주고, 계사 바닥을 건조하게 할 것

3. 사료에 첨가된 록시듭 예방제로는 완전 예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30일령 전후에 셀파디메톡신 계통으로 크리닝을 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⑤ 출하시 1일 을아웃이 불가능한 사정일 때는 (소매상인에게 출하하는 경우) 반드시 특정 관리자가 조용히 잡아낼 것

3. 산란계의 관리 포인트

사양 관리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현재 우리 도계절에 관계없이 육추를 하고 있으나 초생 추 출하 통계를 보면 봄 육추가 가장 많고 4 월 육추가 자연조건으로 볼 때 가장 무난하므로 특히 무경험자일 경우에는 4월 육추를 원하고 싶다. 그리고 부화장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 2년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하기 사항을 참조하여 품종별로 신용있는 부화장을 선택 거래하도록 해야 된다.

① 경제능력검정 성적을 참작하고 경험 있는 사양가와 상의하여 경제성이 좋은 품종을 선택할 것

② 같은 품종이라도 종계의 일령과 부화장에 따라서 성적이 크게 다를 수가 있으니 종계의 일령과 관리상태 및 부화장의 신용도를 반드시 알아보고 거래선을 정할 것

③ 신용있는 부화장의 좋은 병아리라고 인정되면 추대에 구애되지 말고 구입할 것 (40 원 더 비싼 병아리라고 하드라도 일생동안 계란 2개만 더 낳아주면 된다)

(1) 초생추

4월은 육추의 최적기이다. 초보자를 위해 육추의 기본 관리 요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화장에서 도착한 병아리를 일단 안정 시킨 후 따뜻한 물에 설탕과 비타민제를 함께 타서 먹인다. 수송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② 첫모이는 발생후 40시간전후에 급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익우의 길이가 5mm정도 자랐을 때라고 볼 수 있으며 발생차가 심한 계군일 때는 빠른 것을 기준하여 첫모이를 준다.

③ 입주후 일주일간은 24시간 점등을 하고 물과 사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점등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자연일조에 의해서 사육을 한다.

④ 온도는 병아리가 계사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자유롭게 활동하면 적온이라고 보아도 좋다. 온도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병아리 상태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하자. 그리고 고온육추보다는 저온육추가 건강하고 항병력이 강하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⑤ 입주후 1주일간은 계사내에 자주 물을 뿌려서 습도를 높여야 한다. (상관습도 60~70%) 이시기에 건조하면 탈수작용으로 발육이 저하되고 소화불량증에 걸린다. 2~3주간은 계분에서 발생하는 습기와 물통에서 증발하는 습기로 충분한 습도가 유지되며 3~4주 이후부터는 가능한 전조하게 해야 한다.

⑥ 온도와 환기의 상관관계로 온도에 대한 신경만 쓰다가 환기에 소홀하기 쉬운데 병아리 사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환기불량은 발육부진, 각종 질병의 발병 최대 요인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⑦ 질병 예방 접종은 푸 푸로그램대로 실시해야 한다.

⑧ 소독은 매일 1회씩 실시한다.

⑨ 디비킹(Debeaking)은 실시시기가 일정

치않으나 25일령전후에 실시하도록 권하고 싶다.

(2) 중추, 대추

4~5월에 초산을 하는 맑은 조산을 하기 쉬우므로 소홀해지기 쉬운 중, 대추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① 불량추를 과감히 도태할 것
- ② 호흡기 질병과 만성혹시류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③ 평사에서 케이지의 이동은 늦어도 110으령 이전에 할 것
- ④ 일조시간이 길어지므로 조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⑤ 초산 20일전까지 예방접종 (계두, 뉴캣 슬병)을 마치고 내부기생충(특히 희충)을 구제할 것
- ⑥ 제한급이를 하면 맑은 120일령부터 서서히 풀고 산란사료 급여시까지 배분을 사료량의 2~3% 범위에서 별도로 급여할 것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산시 연란 및 파란율이 높아진다)

(3) 산란계

- ① 환기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한시설을 서서히 제거할 것
- ② 초산개시 전후에 종합 비타민제를 충분히 투여하여 체력을 높일 것
- ③ 신계든 노계든 개체별 산란 기록을 하여 성적 불량체를 도태할 것
- ④ 초산직전에 너무 밝을 경우에는 초산시에 카니발리즘이 심하므로 너무 밝지 않게 해주고 물과 사료를 충분히 줄 것
- ⑤ 계사 내부를 1주일에 2~3회 공중 분무 소독할 것



양지
부화장

◇ ◇ ◇
오주풀증 양지부화장
경영·사양관리상법
돌볼약품 염가 도산매

네오크로 } 고농도분말
판 옥시 }

네오크로 } 산란강화제
판 옥시 }

서울·성동구 천호동 413
전화: 56-1938, 55-2208